Market Index / 13일

코스피지수	▲	2944.41 +28.03	코스닥지수	▲	953.47 +13.32	유가(WTI, 달러)	▲	80.64 +0.12

환율(원)	살때	팔때		살때	팔때
1USD	1113.57	1171.83	1EUR	1405.64	1350.80
100￥	1068.61	1031.87	1CNY	194.19	175.71

한우 사육두수 증가… 소값 폭락 우려

코로나19로 가정내 소비 늘며 3만5000여마리로 최다
2023년부터 공급과잉 우려돼 저능력 경산우 감축 추진

코로나19로 제주는 물론 국내 한우 사육규모가 사상 최대치까지 증가하며 이대로 가다간 2023년쯤부터 소값 하락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경제지주, 지역 축협에선 한우수급조절 대책으로 저능력 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을 통해 사육두수 줄이기에 나섰는데 축산농가의 참여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13일 제주도, 농협제주지역본부,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종합하면 6월 말 기준 도내 한우 사육두수는 3만5402마리로 작년 말(3만5393마리)에 이어 사상 최다 수준이다. 전국적으로는 작년 말 322만7181마리에서 올 2분기 334만3548마리로 적정사육두수(300만~320만)를 훌쩍 뛰어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우 사육두수가 2023년 345만6000마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우사육 두수 증가는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위축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해외여행이 막히고 재난지원금 등의 영향으로 외식 대신 가정에서의 한우 소비가 늘자 한우농가에서 입식을 늘린 탓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6월 21~7월 18일 가구당 평균 소고기 구매량은 0.68㎏으로 코로나 이전(2019년)보다 11.5% 늘었다.

수요가 늘며 한우 가격도 호조세다. 10월(4~9일 기준) 수송아지(6, 7월령) 산지가격은 마리당 488만원으로 작년 동월(444만원) 대비 9.9% 올랐다. 올들어 누계 가격은 460만원으로 작년(433만원)에 견줘 30만원 가까이 비싼 수준이다.

10월 4~9일 경매가격(도매가격)은 ㎏당 2만2600원으로 작년 동월(2만1000원)에 견줘 7.6% 올랐다. 2019년 10월(1만8170원)과 2020년 10월(2만710원)과 비교해도 오름세가 뚜렷하다.

이처럼 한우 사육두수가 늘며 향후 공급과잉이 우려됨에 따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주최, 농림축산식품부·농협경제지주·지역 축협 주관으로 수급 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저능력 경산우(새끼를 낳은 암소) 비육지원사업'으로 전국적으로 1차(21~22년) 2만두, 2차(22~23년) 2만두 등 총 4만마리를 감축키로 하고 1차 물량을 11월 30일까지 지역 축협에서 신청받고 있다. 1차로 제주에 배정된 물량은 144마리(제주시 92마리, 서귀포시 52마리)로 마리당 18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2018년 6월 이후 출생한 40개월령 이하 경산우를 6~12개월 비육해 2022년 4월 1일~ 9월 30일 사이 도축을 희망하는 농가다. 농가당 40마리 이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농협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가정내 한우 소비 증가로 소값이 높게 형성되면서 장기적으로 송아지 생산 증가로 2023년 이후 가격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며 "농가의 신중한 입식과 자율적인 암소 감축이 필요한 만큼 경산우 감축에 한우농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새마을부녀회 주최 일일장터 13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일출봉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 성산읍새마을부녀회(회장 김복자)가 주최한 지역사회 소비촉진을 위한 일일장터가 열렸다. 강희만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 급감

2019년 3300여명서 올해 2000여명으로 감소세
농어가 인력난 심화… 무단이탈·인건비 상승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하늘길이 막히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고령화가 심각한 제주지역 농어가들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체류자격이 E-9(비전문취업) 또는 H-2(방문취업)인 외국인 비전문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허가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어업, 서비스업 일부, 농축산업 등 5개 업종으로 국내 노동관계법 안에서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년까지 국내 근로를 허가할 수 있다. 또 3년 후 사업주와 근로자간 계약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1년 10개월에 한해 추가 계약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항공편이 감편·중단되면서 최근 도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내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3310명에서 지난해 2531명으로 1년새 779명 줄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는 2080명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감소에 따라 도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수도 2019년 1472곳에서 올해 1120곳으로 2년새 352곳이나 줄어 들었다.

특히 최근에는 사업장에서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을 좀 더 많이 주겠다는 곳으로 무단 이탈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인력난 문제가 인건비 상승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출국 날짜 만료를 앞둔 외국인이 무단으로 이탈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어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울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내 수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선원을 구하기가 그야말로 하늘에 별따기 수준이다"면서 "심지어 돈을 많이 준다고 하면 여권 등 개인 물품까지 모두 버리면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 이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는 올해로 체류 기간이 만료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1년간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면서 "제주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서 고용 문의가 오면 체류 기간 연장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제주 여행 트렌드는 '나홀로 여행'

제주항공, 1인 탑승객 분석
전체 탑승객 중 35% '혼행족'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1인 여행을 선호하는 이른바 '혼행족'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은 올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선 탑승객 가운데 1인 탑승객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8월말까지 전체 탑승객 417만명 중 35%인 146만명이 1인 탑승객으로 나타났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65만명의 국내선 이용객 중 31.4%인 83만명이 혼자 여행하는 1인 탑승객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1인 탑승객의 비율은 3.6%p(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다만 이 결과는 1인 단독으로 항공권을 예약하고 발권해 탑승했을 때 1인 탑승객으로 분류한 것으로, 함께 여행하는 동반자와 별도로 예약을 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어 실제 1인 여행객 수와 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6월 발간한 '2020년 국민여행조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개년 간 혼행족 비중은 2018년 2.5%, 2019년 4.1%, 2020년 4.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관광 여행 평균 동반자 수도 2018년 4.9명, 2019년 4.3명, 2020년 3.2명 등으로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은 이처럼 1인 탑승객 수가 늘어난 것에 관련해 지속되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한 단체여행의 어려움과 시간과 목적지의 구애를 받지않고 떠날 수 있는 1인 여행의 특징 등을 이유로 설명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수가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1인 세대의 생활 방식이 경제와 문화 등 전반에 걸쳐 변화를 만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항공은 혼자 즐기는 여행의 매력 등을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jejuair_official)에 올리며 추첨을 통해 간식 세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13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전 10시까지 진행하는 이벤트 기간에는 오는 24일까지 탑승할 수 있는 국내선 항공권도 특가 판매한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2021 도민행복일자리박람회
22일까지 온·오프라인 운영

코로나19로 인해 경직된 채용시장을 활성화하고 도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21 온·오프라인 도민행복일자리박람회'가 지난 5일부터 22일까지 열리고 있다. 일자리 박람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상공회의소·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제주대학교 LINC+사업단, 제주한라대학교 LINC+사업단, 제주테크노파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가 공동 주관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 기간에는 51개 기업에서 100여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서울 온라인 채용박람회와 연계해 다양한 일자리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현재 박람회 회원 가입자가 800여명을 넘을만큼 참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구직자는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일자리·구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채용지원 서류 제출과 면접 등에 참여 가능하다. 또 온라인 취업특강, 참여기업 홍보영상, 등 취업 관련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구직자를 위해 18~22일에는 제주고용센터 5층에서 관련 유관기관들의 맞춤형 컨설팅 부스가 마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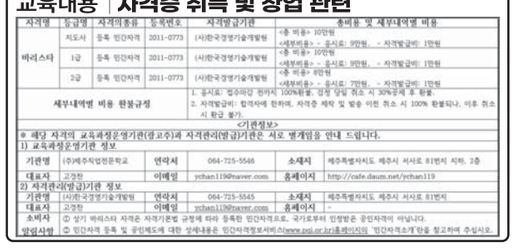
문미숙기자

국민내일배움카드 소지자 환영

전기기능사취득(필기+실기)과정(주말반)
교육기간 | 2021.11.06~2022.01.22(22일, 132시간)
교육시간 | 15:00~22:00(저녁시간 포함, 야간 6교시)
대 상 | 실업자 · 재직자 · 일 반
교육내용 | 전기기능사 필기+실기 자격증 대비

전기설비 직무능력 향상 과정(주간반)
교육기간 | 2021.10.11~2021.12.17(2.5개월, 150시간)
교육시간 | 14:00~17:00(평일 주간, 일일 3교시)
대 상 | 실업자·재직자·일반(위기산업직종 종사자 포함)
교육내용 | 전기 심화 이론, 전기 설비 이론 및 실습(전기(산업) 기사 수준)

커피 바리스타 과정
대 상 | 실업자 · 재직자 · 일 반
교육기간 | 상시 모집 중
교육시간 | 오전, 오후, 야간 매일 3시간씩
교육내용 | 자격증 취득 및 창업 관련



컴퓨터(OA관련, 전산회계 1급, 2급) 과정
대 상 | 실업자 · 재직자 · 일 반
교육기간 | 상시 모집 중
교육시간 | 오전, 오후, 야간 매일 3시간씩
교육내용 | OA관련(사무자동화, ITQ, 컴활2급), 전산회계 1급, 2급

2021년 제1회 전기기능사실기 9명 응시 9명 합격(100%)
문*민, 한*남, 강*열, 김*현, 옥*환, 이*석, 정*완, 최*영, 최*혜(총9명)

제주직업전문학교
제주시 서사로 81 (삼도1동) 중앙여중 정류장, 진영마트 맞은편 064)725-5545 http://www.jejuvs.co.kr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조생 4년생
감평(레드향) 3,4년생
천혜향 3,4년생, 황금향 3,4년생
한라봉엠 3,4년생, 남진해 3,4년생
뿌리는 5년생 양묘계약 합니다.
※ 분양은 2022년 10월 30일
애월읍 상가리 716번지 870평
성전온주 2년생
유라조생 1년생
천 혜 향 1년생
감평(레드향) 1년생
탱 자 묘 1년생
유라조생 접수분양계약
한림종묘사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2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원터프린스, 제라몬(레몬),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신품종천혜향), 나스미(카라향), 탐빛1호, 댕유자, 아마나스
조 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오하라베니(궁천변이지), 히로시마 7호, 일남1호, 탱자묘목(1000본 이상)

오하라베니 자원종묘 착과모습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5년생 화분·하례조생
● 윈터프린스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다) 조생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